

외국인 148조 던지고 개미는 샀다... 반도체 '엇갈린 베팅'

삼전 75.5조, 하닉 60.5조 순매도
신용용자거래 37조 '사상 최대'
"과한 투자열풍 대책 필요" 우려도

코스피가 8000선을 다시 회복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대급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11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37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공장) 등을 세우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부가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자'를 외치며 31조원 이상 순매수한 것과 반대 행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나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다 개미들만 고점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반기에만 코스피에서 약 148조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5~6월에 93조원가량의 보유 주식을 털어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가장 집중된 곳은 반도체다. 삼성전자를 75조5000억원, SK하이닉스를 60조5000억원씩 팔아치웠다. 코스피 전체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 변동성에 혼란스러운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순매도 금액(약 157조원)의 86.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차익 실현을 위한 기계적 매매" vs "한국 반도체 과열"

증권가에선 외국인 매도세가 차익 실현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기계적 매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한국 증시의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국 반도체'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자, 특정 섹터의 쏠림을 막기 위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해외 연기금·투자은행·증권사 등 기관이 대부분이다. 기관 투자자는 지역과 업종 등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분화해 리스크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

데, 이 과정에서 코스피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는 해석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외국인 매도는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난 데 따른 비중 축소 리밸런싱"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반도체 산업 쏠림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월가의 유명 투자자이자, 당시를 그린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업운용 대표가 지난 달 30일 "현재 상승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지출"이라며 "하지만 나는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미 CNBC가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한국발

투자 모멘텀이 지금의 상승을 떠받치고 있지만, 그 동력이 꺼지는 것은 시점의 문제라는 얘기로 해석하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정부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서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자체 연구 기관인 블랙록 투자연구소(BII)는 지난 달 30일 한국 등 신흥 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만은 TSMC가 증시를 주도하는 구조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부아뱅크 BII 소장은 "대만과 한국 주식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큰, 소수의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며 "여러 시장이 동일한 공급망 밸류체인에 묶여 있을 때 지리적 다변화는 집중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불안한 빚투 개미들

외국인 '탈자' 물량이 늘수록 개미들은 불안하다. 반도체 주가가 날뛰기하고 있어서다. 지난 달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대 12.31% 하락(6월 23일), 최대 10.09% 상승(6월 1일) 하는 등 하루 만에 두 자릿수 등락을 반복하며 출렁였고, SK하이닉스도 최대 15.91% 급등(6월 9일), 최대 14.57% 급락(7월 2일)하며 극심한 변동성

을 보였다. 올해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48조3000억원)와 SK하이닉스(45조3000억원)이다. 이중 상당수는 빚투 개미들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용자거래 잔고는 연초 27조원대에서 지난 1일 기준 37조339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에는 38조6328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최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등의 여파로 극소수 종목의 폭등 현상이 이어지고,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수많은 국민이 위험한 빚투까지 실행해 주식투자에 매몰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달콤한 독약은 아닌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층적인 역학 조사, 불균형 타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하며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공개하고 있다"며 "지난 주 주식시장의 변동성 역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키우는 수급 우려들이 단기적으로는 병목 해소를 위한 대응,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균형 회복으로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국민성장펀드, 60% 이상 지방기업 투자

금융위, 지역전용 투자리그 신설
5년간 1조 투입해 지역벤처 육성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한다. 지역 전용 투자 리그를 신설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지방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운용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역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영원 금융위원장은 3일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정보의 불균형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장벽으로 지방에는 자본이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됐다"며 "더 많은 정책 금융이 지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내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한다. 지역전용리그는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달 중 3곳 인력의 운용사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금 조성에 들어간다.



이영원 금융위원장

/뉴스시스

선정된 운용사는 결성된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역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소재 운용사를 우대해 지역 벤처기업 발굴과 투자, 후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전체 운용에서도 지역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공급할 예정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40% 이상을 지방에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승인한 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46.8%인 6조5000억원을 지방 사

업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도 지역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추가 모집 예정인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0% 이상인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책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방 유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동남권을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과 우수한 항만 인프라, 합정 MRO 클러스터 등을 갖춘 해양도시"라며 "여기에 첨단산업 대표 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더해져야 지역의 경쟁력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민성장펀드 승인 사업 가운데 부산 기업은 없지만, 미래모빌리티와 방산 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산 기업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투자증권, 시니어 디지털 WM 서비스 선보

은퇴·상속·디지털 한 번에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자산관리(WM)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Premier)'를 통해 시니어 고객을 위한 SOL메이트 자산관리 라인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고객 경험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강화는 신한SOL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 내 시니어 고객 전용 디지털 공간인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 실버라운지' 오픈과 신한 Premier의 브랜드 가치와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한 특화 상품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랩(인컴형)' 출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신한 프리미어 SOL메

이트 행복이음신탁'까지 연계해 은퇴 전후 고객의 현금흐름, 상속·증여, 디지털 이용 편의성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 실버라운지'는 신한 Premier의 자산관리 솔루션과 신한금융그룹의 시니어 브랜드인 'SOL메이트'가 만난 시니어 전용 디지털 공간으로, 고객이 필요한 자산관리 정보와 은퇴 솔루션, 라이프 케어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하은 기자

'빚투' 62조 시대... 증권사 이자수익도 최대

국내 증권사 2분기 이자수익 1.4조

지난 2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려 투자한 '빚투'도 하루 평균 6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빚투'로 국내 증권사들이 2분기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6월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일 평균 35조9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1~3월) 1일 평균 31조126억원보다 15.9%(4조9292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빚투'의 지표로 여겨진다. 지난 2분기 초 32조원대였던 신용용자 잔고는 지난 달 24일에는 38조6328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분기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예탁증권

담보용자)은 1일 평균 25조96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 평균(26조296억원)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줄곧 24조~26조원대를 넘나들었다.

예탁증권담보용자는 담보로 제공되는 종목이 제한이 있고, 담보가 된 종목은 팔 수 없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큰 변동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담보 대출은 그동안 현금 인출 등 다른 용도로도 이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증시 활황으로 대부분 증시에 재투자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용자 잔고와 예탁증권담보 용자를 합친 2분기 '빚투'는 하루 평균 61조908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평균은 57조423억원이었다.

신용용자와 예탁증권담보 용자는 증권사와 용자 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데, 용자 기간은 대개 한 달이 넘는다.

/신하은 기자

수혜주 모은 'KB AI전력인프라ETF' 주목

국내 전력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수혜 업종으로 전력 인프라가 부상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B자산운용은 국내 전력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RISE AI전력인프라 ETF'를 통해 투자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

KB자산운용은 'RISE AI전력인프라 ETF'가 국내 AI 전력 인프라 투자 대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전선 ▲변압기 ▲송배전 설비 ▲발전설비

▲전력기기 등 국내 전력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다. 'KRX-AkrosAI전력인프라 지수'를 추종하고, 테마 적합도를 중심으로 총 15개 종목에 투자하면서 최대 편입 비중을 제한해 특정 종목 편중 위험을 낮췄다.

주요 투자 종목은 가온전선(22.28%), LS ELECTRIC(8.39%), 산일전기(7.41%), 효성중공업(6.66%), 서진시스템(6.04%), HD현대일렉트릭(5.90%), 대한전선(5.80%), LS에코에너지(5.26%), 제룡전기(5.17%), 일진전기(5.06%) 등이다. /신하은 기자